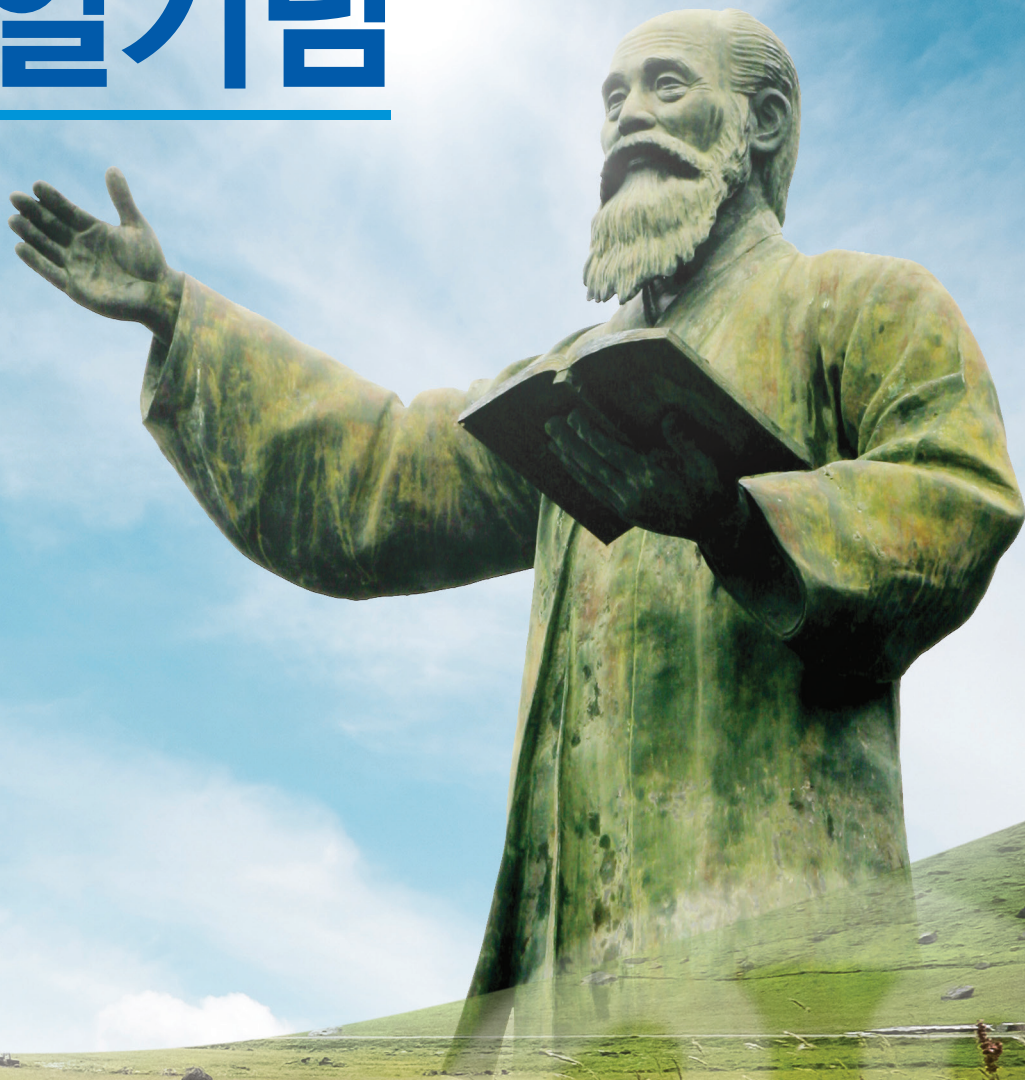

제158주년
지일기념



포덕 162(2021)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제 158주년

地 日 기 념



포덕 162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제13장 기념송	12
천덕송_제29장 지일기념가	14
해월신사 법설_ 三敬(삼경)	17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신사 약력	20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三敬(삼경)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제29장 지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사인여천 문화행사]

- 문화공연
- 사인여천 나눔

[제31회 미술인회 한마당전]

- 전시기간 : 8월 14일(토)-22일(시일)
- 전시장소 : 수운회관 4층 전시실

기 념 사

국내외 동덕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사께서 도통을 이어받으신지 158주년이 되는 지일기념 일입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오늘의 뜻깊은 지일기념일을 함께 경축하면서 신사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온갖 고난과 역정 속에서도 한 걸 같이 도를 펼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그 불굴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사께서는 포덕전 33년(1827년)에 경주 황오리(黃吾里)에서 탄생하신 후 마북동(馬北洞) 검곡(劍谷)으로 이사하여 기거하시면서 신유포덕(辛酉布德) 당시 용담으로 대신사님을 찾아가 입도하셨습니다.

신사께서는 입도 후 검곡에서 용담까지 70리길을 멀다 않고 대신사님을 찾아뵙고 수도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도 다음해에 대신사님으로부터 ‘포덕에 종사하라’는 명교를 받고 영해(寧

海)·영덕(盈德)·상주(尙州) 등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포덕하자, 이때부터 ‘검악포덕(劍岳布德)’이라는 소문이 퍼져 신사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에 대신사께서는 특별히 신사의 지극한 정성을 높이 보시고 불과 입도 2년여 만인 포덕 4년 8월 14일에 도통을 전수하셨습니다.

도통 전수 당시 대신사께서는 ‘용담수류사해원(龍潭水流四海源) 검악인재일편심(劍岳人在一片心)’이라는 결시(訣詩)를 신사에게 주셨습니다. 이 결시는 용담의 물이 흘러 네바다의 근원을 이루듯 신사의 일편단심이야말로 장차 무극대도를 포덕천하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신사께서는 도통을 전수하신 후 10월 28일 생신일을 맞아 신사에게 “우리 도(道)는 원래 유(儒)도 아니요 불(佛)도 아니요 선(仙)도 아니라 유불선합일(儒佛仙合一)이니라. 유불선은 천도(天道)의 한 부분이니라. 그대는 후에 도(道)를 용(用)하는 자 이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천명(天命)으로 받아들인 신사께서는 대신사 순도와 함께 도산검수(刀山劍水)의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삼남 일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동학을 포덕하는 초인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포덕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요인으로 동학의 본원적인 평등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신사계서는 포덕 6년 10월 28일 대신사님의 탄신향례를 봉행하면서 “사람은 한울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 사람을 인위(人爲)로써 귀천을 가리는 것은 한울님 뜻에 어긋나느니라.”는 귀천타파(貴賤打破)의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 설법은 신사계서 승통하신 후 첫 번째의 설법으로써 대신사의 가르침인 시천주의 인간평등을 천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 3월 10일 대신사님의 순도제례를 봉행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적서(嫡庶)의 차별을 두지 말라”는 설법을 하셨습니다.

시천주(侍天主)를 근간으로 하는 동학천도교의 평등사상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한울님을 모신 고귀한 한울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천(人乃天)의 인간관(人間觀)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사계서는 인시천(人是天) 즉, “사람이 바로 한울이요 한울이 바로 사람이니 사람 밖에 한울이 없고 한울 밖에 사람이 없다(人是天 天是人 人外無天 天外無人)”고 설법하셨습니다. 이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실천윤리를 특별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종래에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이러한 가르침은 구태의연한 민

중들의 삶과 생각에 일대 변혁을 불러 일으켜 구시대의 낡은 질서를 뒤흔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신사께서는 이미 ‘도덕가’에서 “지별(地閥)이 무엇이게 군자(君子)를 비유하며 문필(文筆)이 무엇이게 도덕(道德)을 의논하노”라고 하시면서 지체니 문벌이니 가문이니 하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도덕적인 군자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도를 닦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학식이나 언변이 아니라 정성과 공경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우리 도를 요약하면 성경신(誠敬信) 세 글자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신사님 역시 “성경신에 능하면 성인되기가 손바닥 뒤집기 같이 쉽다”고 하셨습니다.

신사께서 당시 반상(班常)의 권위주의적 신분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설파함으로써 차별받던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어 폭넓은 포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사께서 초인적 포덕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동학을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수도와 실천공행에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사께서는 포덕 8년 10월 28일 흥해(興海)에서 양천주(養天主) 설법을 하시면서 “마음이란 나에게 있는 본연의 한울이니 천지만물이 본래 한 마음이니라”고 전제하고 “한울을 키울 줄 아는 자라야 한울을 모실 줄 아느니라. 한울이 내 마음속에 있음이 마치 종자의 생명이 종자 속에 있음과 같으니,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키우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道)에 의하여 한울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오직 한울을 키운 자에게 한울이 있고 키우지 않는 자에게는 한울이 없나니, 종자를 심지 않은 자 누가 곡식을 얻는다고 하더냐”라고 쉽게 말씀하심으로서 수도와 실천공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향아설위(向我設位)에서는 제사지낼 때에 벽을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정령은 자손에게 전하여지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들에게 강림되었으므로, 부모를 위해서나 선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그 위를 받드시 나를 향하여 베푸는 것이 옳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생각하든지 사후 정령이 있다고 하면 그 정령이 인간을 버리고 어디에 의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향아설위는 직접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이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계서는 이처럼 동학의 교리와 이념을 자신의 생활에 비유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설파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일대 전환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동학을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정부의 탄압으로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한 동학을 신사계서는 불굴의 의지와 지극한 정성으로 후천 오만년의 무극대도를 지켜내셨습니다.

신사계서는 대신사님의 신원을 위해 포덕 33년에 공주(公州)와 삼례(參禮)에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해 포덕 34년 2월에는 유생(儒生)을 가장한 수천명의 도인들이 상경하여 목숨을 걸고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伏閣上疏)를 감행하셨습니다. 이어 3월에는 보은(報恩) 장내리(帳內里)에 약 3만 명의 교인이 모인 가운데 신원운동과 아울러 척왜양운동(斥倭洋運動)을 전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사계서는 창도 후 계속되는 관헌의 압제에 당하기만 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공개적으로 신원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교문이 이단(異端)으로 박해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 당시 남북접 동학군에 대한 총기포령을 내려, 혁명노선을 척왜양의 반침략운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교단의 보국안

민 이념을 대내외적으로 선양하셨습니다. 오늘날 동학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도 신사님의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님은 동학혁명 4년 후인 포덕 39년에 체포되어 “내가 죽은 후 10년 안에 서울 장안에 주문 읽는 소리가 진동하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도하셨습니다. 과연 그 유언대로 성사께서는 포덕 46년 12월 1일에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하고 그 다음 해 2월 서울에 천도교중앙총부를 설치함으로써 불과 8년 만에 서울 장안에 주문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5월 13일 여주에 모셔져 있는 신사님 묘소가 경기도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된데 이어, 천도교중앙총부는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와 함께 ‘해월신사 생가터 복원과 공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처럼 신사님의 덕업이 사회적으로 추앙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동덕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3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헌개정을 위한 임시대회 개최를 결의한 후, 교헌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네 차례의 공청회를 거

쳐 교헌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대회 개최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두 번이나 일정을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정상으로는 대회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또한 운수라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58주년 지일기념을 맞아 우리 교인 모두는 신사님의 거룩한 뜻을 높이 받들어 새기고 실천궁행으로 교단중흥을 위해 동귀일체 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심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2(2021)년 8월 14일

천도교 교령 송 범 두 심고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29장 지일기념가

1. 장 -- 하 도다 오 늘 은
 2. 장 -- 하 도다 오 늘 은
 3. 장 -- 하 도다 오 늘 은

1. 팔 월 십 사 일 -
 2. 팔 월 십 사 일 -
 3. 팔 월 십 사 일 -

1. 사 - 해 운 - 중 밝 은 달 이
 2. 해 - 월 신 - 사 승 통 한 날
 3. 해 - 월 신 - 사 무 극 대 도

1. 솟 아 울 - 라 서 -
 2. 도 통 이 어 받 어 -
 3. 이 어 받 - 은 날 -

1. 어 든 세 - 상 명 랑 하 게
 2. 이 세 교 - 조 되 - 셔 서
 3. 어 든 세 - 상 밝 아 온 날

1. 비 취 주 - 신 날 -
 2. 세 상 건 지 신 날 -
 3. 창 생 살 아 난 날 -

1. 영 -- 원 - 히 찬 연 토 다
 2. 영 -- 원 - 히 찬 연 토 다
 3. 영 -- 원 - 히 찬 연 토 다

1. 지 일 기 - 념 일 -
 2. 지 일 기 - 념 일 -
 3. 지 일 기 - 념 일 -

후렴

보 - 아 라 휘 날 리 는

궁 을 깃 - 발 을 -

이 - 땅 위 - 에 궁 을 꽃

피 워 를 - 보 세 -

三敬(삼경)

사람은 첫째로 敬天을 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先師의 創明하신 道法이라. 敬天의 原理를 모르는 사람은 眞理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하면 한울은 眞理의 表을 잡은 것이므로써이다. 그러나 敬天은 결단코 虛空을 向하여 上帝를 恭敬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恭敬함이 곧 敬天의 道를 바르게 하는 길이니, 「吾心不敬이 卽 天地不敬이라」 함은 이를 이름이었다. 사람은 敬天함으로써 自己의 永生을 알게 될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人吾同胞 物吾同胞의 全的理諦를 깨달을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남을 爲하여 犧牲하는 마음, 世上을 爲하여 義務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敬天은 모든 眞理의 中樞를 把持함이니라.

사람은 첫째로 한울을 公경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처음 밝히신 도법이라. 한울을 公경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 하면 한울은 진리의 중심을 잡은 것이므로써이다. 그러나 한울을 公경함은 결단코 빈 공중을 향하여 상제를 公경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公경함이 곧 한울을 公경하는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니, 「내 마음을 公경치 않는 것이 곧 천지를 公경치 않는 것이라」 함은 이를 이름이

었다. 사람은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한울을 공경함은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움켜잡는 것이니라.

둘째는 敬人이니 敬天은 敬人の 行爲에 의지하여 事實로 그 效果가 나타나는 것이다. 敬天만 있고 敬人이 없으면 이는 農事의 理致는 알되 實地로 種子를 땅에 뿌리지 않는 行爲와 같으니, 道 닦는 자 사람을 섬기되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道를 實行하는 者니라. 道家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降臨하였다 이르라 하였으니, 사람을 恭敬치 하니하고 鬼神을 恭敬하여 무슨 實效가 있겠느냐. 愚俗에 鬼神을 恭敬할 줄은 알되 사람은 賤待하나니, 이것은 죽은 父母의 魂은 恭敬하되 산 父母는 賤待함과 같으니라. 한울이 사람을 떠나 別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 恭敬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解渴을 求하는 자와 같으니라.

둘째는 사람을 공경함이니 한울을 공경함은 사람을 공경하는 행위에 의지하

여 사실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라. 한울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함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지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 도 닦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되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니라. 도인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이르라 하셨으니, 사람을 공경치 아니하고 귀신을 공경하여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어리석은 풍속에 귀신을 공경할 줄은 알되 사람은 천대하니, 이것은 죽은 부모의 혼은 공경하되 산 부모는 천대함과 같으니라. 한울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해갈을 구하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는 敬物이니 사람은 사람을 恭敬함으로써 道德의 極致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物을 恭敬함에까지 이르러야 天地氣化의 德에 合一될 수 있나니라.

셋째는 物을 공경함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物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느니라.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신사 약력

- 포덕전33년(1827) 3월 21일, 경주 황오리에서 탄생하시다.
부친은 경주 최씨(慶州 崔氏) 종수(宗秀),
모친은 월성 배씨(月城 裴氏).
본래 이름은 경상(慶翔), 포덕 16년에 시형(時亨)으로 고치시다.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이시다.
- 포덕 2년(1861) 35세에 경주 용담에서 입도하시다.
- 포덕 4년(1863) 7월, 대신사로부터 해월(海月)의 도호를 받으신 후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되시다.
8월 14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시다.
- 포덕 8년(1867) 10월, 「양천주(養天主)」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12년(1871) 3월, 영해에서 교도 6백여 명을 동원,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13년(1872) 1월, 「대인접물(待人接物)」에 대한 설법을 하시다.
- 포덕 21년(1880) 5월,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시고
6월 15일, 경전 간행 치성제를 행하시다.
- 포덕 22년(1881) 6월, 단양 남면 삼골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시다.
- 포덕 24년(1883) 2월, 충청도 목천에서 『동경대전』 1,000부를 간행하시다.
- 포덕 25년(1884) 10월, 조직편제의 하나로 6임제(六任制)를 정하시다.
- 포덕 26년(1885) 9월,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31년(1890) 11월, 금릉군 복호동에서 「내수도문」과 「내칙」을 반포하시다
- 포덕 32년(1891) 10월, 「임사실천(臨事實踐) 10개조」를 반포하시다.
- 포덕 33년(1892) 10월에 공주에서, 11월에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34년(1893) 1월, 「천지부모」에 관한 통유문을 반포하시다.
 2월,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전에서 복합상소,
 3월, 보은 장내리와 전라도 원평에서 3만여 명이 모여
 척왜양창의 운동을 하시다.
- 포덕 35년(1894) 3월 21일, 백산에서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대접주가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 동학혁명의 깃발을 올린다.
 5월, 청일양군(淸日兩軍)이 상륙하여 주권을 침해하자
 9월 18일, 해월신사는 옥천 청산에서 총 기포령을 내려
 항쟁에 나서게 하다.
 12월, 공주전투를 고비로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혁명운동은 잠정상태로 들어가다.
- 포덕 38년(1897) 4월 5일, 「향아설위」의 의식을 행하시다.
 12월 24일, 도통을 의암성사께 전수하시다.
- 포덕 39년(1898)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관헌에게 피체되시어
 6월 2일, 한성(경성)감옥에서 72세를 일기로 교수형으로 순도하시다.

사인여천 (事人如天)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주최·주관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